

한나라 당협위원장 경쟁 세졌네

광주·전남 4곳 공모 3.5대 1...비공개 접수도 다수 남구 6, 순천 4, 나주·화순 2, 함평·영광·장성 2명

한나라당은 11일 사고지구당 20개 지역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광주 남구 6명, 순천 4명, 나주·화순 2명, 함평·영광·장성 2명 등 모두 79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에는 노덕린(55) 삼원산업 대표, 강병수(43) 대성세무법인 대표, 박용섭(63) 송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김근진(54) 전 동신대 겸임교수, 박철진(55)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법연

합 사무총장, 안영신(52) 동광대학 교수 등이 접수했다. 또 순천에는 장귀석(57) 한국자유총연맹 순천시지부장, 황선호(54)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위원장, 이광재(53) 성인이앤씨(주) 전무, 김봉섭(62) QBN(당구방송) 회장 등이 공모에 응했다.

나주·화순에는 김종우(54) 나주향교 수석 장의와 문종안(66) 송화원 대표가 함평·영광·장성에 정승태(71) 전남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장희정(65) 대성영림조경(유) 대표가 각각 접수를 마쳤다.

이와 따라 광주·전남지역 4개 사고지구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경쟁률은 3.5대 1이나 됐다. 하지만, 비공개 접수자가 14명이나 돼 지역구에 따라 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민주 빅3 “가자! DJ 앞으로”

서거 2주년 맞아 차기 대선주자들 적자 경쟁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리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2주년을 맞아 DJ 정신 계승을 앞세우며 적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10~18일을 공식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16일 김대중 연보 출판기념회, 17일 추모음악회, 18일 공식추모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손 대표의 김 전 대통령 추이 마련한 일정 전부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18일 준비한 서거 2주년 토론회에도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복진보’ 발언 등으로 불거진 정세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당의 유력주자로서 전통적 지지층의 확

한 인정을 받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손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려는 민생진보, 보편적 복지, 정의사회의 길은 DJ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DJ가 생전에 말했던 야권 통합의 길로 가고자 한다”며 “DJ 없는 민주당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추모 행사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남북문제, 야권 통합 등 김 전 대통령 서거 2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글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 측은 DJ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고, 중요한 고비마다 DJ를 지근거리에서 모신만큼 정치의 스

승이자 마음의 스승에 대한 2주기 소회가 남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서거 2주년을 맞아 야권 단일화에 대한 감회가 절실하다.

2009년 6월 DJ와의 마지막 만남 때 야권통합을 위해 민주당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세를 주문했던 DJ의 유지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공식추모식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을 대표해 권양숙 여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지만 최근 야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한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으로 모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축銀 피해보상안 혼란만 가중

특위 구제대책 포퓰리즘 논란 좌초 위기

정치권도 반발... 홍준표 “국가배상 소송”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았지만 포퓰리즘 논란으로 좌초 위기를 맞는다. 하연 정치권 안팎에서 각종 수정안이나 대안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현재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으로 국조특위의 예금구간별 차등 보상안 외에 ▲국민연금 보상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은닉재산 환수 보상 ▲금융감독원 발당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비판이 잇따르자 하연 현실성이 의심되는 방법도 있어 정부나 정치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이하 소위)가 마련한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은 각계의 비판 속에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회 정부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1일 “소위가 내놓은 피해구제 방안이 특별법 형식으로 소관 상임위원 정무위로 넘어오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며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신속히 보상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소위의 특별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당 최고·중진



심상정 고문 병원 긴급이송

회의에서 “소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 의견에 불과하고 이것이 정식 법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소위안과 거리를 뒀다.

이에 소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날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 차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행하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률지원단’을 구성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나흘간의 휴가구상 뭘까?

자택서 야권통합·대선전략 골몰 분석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14일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보낸다. 지난해 10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휴가다.

손 대표는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당면한 문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 수해 등을 참작해 휴가를 잇은 여름을 보내려 했으나 총 130여 일에 걸친 1~2차 민생 ‘희망 대장정’

과 4·27 재보선 출마로 인한 고갈 난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그는 휴가 기간 외부 일정을 일절 잡지 않은 채 분당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 손 대표가 밝힌 ‘당면 문제’는 야권 통합, ‘장기 계획’은 내년 총선과 대선 전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손 대표로서는 최근 하락세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장직’ 던질까

야 투표불참 운동 속 ‘지지층 결집’ 거취표명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주민투표 직전 투표 결과에 따른 ‘서울시장직 진퇴’ 등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대대적 투표 불참운동 속에서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기 위해 오 시장이 전격

적으로 시장직을 걸고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시장직을 던지는 각오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투표 승리를 이끌 경우 대권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 대선 경쟁력을 위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에서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다. 오 시장이 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고 민주당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야권통합에 대한 담대한 방안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 대표가 여름휴가 이후, 야권통합 방안과 12월 통합 전당 대회를 향한 수순과 일정, 방법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야권통합을 위해서 민주당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휴가를 통해 다른 야당에 양보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규모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급부상할 수 있다.

물론, 주민투표 승리를 바로 대선 도전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 시장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거센데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을 중심으로 한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자력 대권 도전’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직을 던지겠다’고 한 상황에서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다. 오 시장이 생각하기 싫은 가정이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음성채널의 신기원

대한민국 최최 무료음성커뮤니티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널서비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 사 이 오
남 여 통 1,688-5425

보급요금 >>> 07년 음성 소실량 >>> 07년 여행정보 >>> 12년 연인만들기 >>> 09년 매너만들기 >>> 10년 1:1 대화방 >>> 19년

14년 전통 하트톤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비비비비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107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갯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금 구상, 신용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슬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체준) 010-5311-0086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말일까지: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1회 19시~21시 교육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까지 실습 위주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실관 4층)
- 등록방법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사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